

# 藝能系 입시 共同管理의 當爲性

金 永 起

(梨花女大 生活美術學科)

## 1. 序

모든 제도라는 것은 사회적 인 여러 한계에 의하여 선택된 산물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제도라는 것은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없는 확률적 만족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제도의 선택은 곧 확률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확률적 선택은 그 자체가 이미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에도 문제는 반드시 내재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술대학의 공동 관리 제도에도 문제는 내포되어 있고 대학의 자체 관리에도 문제는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공동 관리나 자체 관리를 논할 때 찬성이나 반대나 하는 흑백론적 견해는 의미가 없다.

공동 관리 제도가 좋으나, 나쁘냐 하는 판단보다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왜 공동 관리로 되

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 제도를 생각해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왜 미술대학의 입시 제도가 공동 관리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질문 속에는 사회 환경의 제반 문제를 바탕으로 교육 환경의 문제를 논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문제 인식의 접근을 미술의 場 안에서 보지 않으려는 공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2. 社會的 環境

교육 환경도 거대한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하위 환경이기 때문에 교육 환경의 문제 속에 사회 환경의 문제가, 사회 환경의 문제 속에 교육 환경의 문제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관점을 기초로 생각해 볼 때 공동 관리 제도도 이와 같은 시각 위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믿는다. 콩프트가 말하는 사회는 세

포인 가족과 사회 유기체의 조직(Tissue)인 계급, 그리고 실제 기관인 도시와 콤문(Commune)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가족 사회의 변화, 사회 계급의 구조적 변화, 전통적 삶의 방식으로부터 변화되어진 도시와 콤뮤니티의 형성 과정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전통적 대가족 제도로부터 세포 분열된 핵가족화의 가속적 변화에서 파생되어진 개인주의,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가치관 사이의 갈등, 인류학적 공동 운명체로서의 민족 의식의 상실, 정신 문화의 퇴행을 촉진시켜 온 물질적 풍요, 물질에 기반을 둔 새로운 윤리관의 등장 등의 변화들이 건전하게 학습되고 이해되면서 오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우기 이러한 변화들은 근대 사회로 변모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어진 윤리적 기

회주의 의식과 결합하여 극도로 사회를 병들게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소위 불신 풍조의 불신 사회니 하는 말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는 말들이다. 서로가 믿을 수 없는 존재의 사회로 변해 버린 것이다.

교육도 이렇게 변화되어 버린 사회의 피해자로서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건강한 사회가 건강한 사람을 만들고 병든 사회가 병든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불신과 부조리에 의한 병든 사회 속에서 교육을 지키기 위하여는 많은 처방이 있겠지만 교육의 장 안에서 그러한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는 대학이 사회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지키는 것은 대학을 이끌어 가는 교수들 개개인의 존재를 지키는 것이며 끝까지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다. 단일 대학이 사회의 부조리를 절타할 만한 스스로의 정직성과 진실을 지키지 못한다면 역사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간 대학이 겪어 온 전통은 말할 수 없는 부조리적 도전들의 연속이었으며 전체 교육을 위기에까지 몰고 갈 위협 수위를 느끼게 했었다.

교육 사회의 불신으로까지 몰고 간 현실에서 반드시 회복되어 교육의 순수성을 되찾게 하여야 할 것이다.

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다른 집단들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며 집단들간의 이해 관계의 대립으로 도덕적·윤리적 자원에 의하여 합의가 순리대로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통제적인 규제 규범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미술대학 입시에 대하여 부패와 불신의 의식을 갖고 보려는 사회 현실적 상황에서 대학·입시생·학부모 모두가 긍정적으로 합의를 분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며 이 제도의 운영·관리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불신이 지배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대학이 더 나아가 전반적 미술교육의 신뢰와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

### 3. 大學의 自尊心

모든 구성원이 다 부패해 버린 사회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정직한 사회도 없다. 때문에 모든 제도는 그 제도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보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반면에 제도에는 모든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 존재로운 영된다. 이들 두 개의 개념은 서로 모순이면서도 동일성을 이룰 때 제도의 객관적 신뢰를 갖게 된다.

미술대학 입시의 특수성은 무엇인가? 사지선다형의 객관식 문제의 출제로 평가가 가능한 분야의 경우는 대학의 제도적 장치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학과목들

은 그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대학내의 전공 학과에 따른 특별 전공 시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능계 중에서도 미술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

미술대학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내용은 고등학교 미술교육의 학습 과정에서 배우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정규 고등학교 과정에 의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자연 미술대학의 지망생들은 학교 이외의 場, 즉 비제도적 교육 기관이나 개인별 특별 교육을 통하여 입시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시생이나 부모들, 고등학교 진학상담 교사들은 자연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는 진국의 미술대학마다 다소간의 출제 경향, 출제 방식 등의 차이에 의하여 다양하기 때문에 입시에 대한 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에 대한 확신이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불안의 요인을 보면 첫째로 어떠한 학교를 지망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하는 문제, 둘째로 어디서 누구에게 배우는 것이 그 학교의 취향에 가장 적중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 셋째로 이 그림이 잘 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잘 되었다면 어느 정도이며 못된 것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개인의 성장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 넷째로 주관적 판단과 비교 판단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미술

에 있어서 애매성과 모호성에 대한 불안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미적 판단이나 미적 경험이 언어로 설명될 때나 비언어로 나타날 때 평가의 기준을 객관화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은 불신과 부패가 만연된 사회에서는 오해와 억측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직을 아무리 주장해 보아야 믿어 주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학 자체에서 입시를 관리할 경우 예능계 교수들의 정직은 보호받기 어려운 상태로 변해갈 것은 당연하다(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된 후에는 예외이다).

사회 인식의 측면에서의 문제를 살펴 보면 과학에 대한 지식은 늘어나고 예술에 대한 이해는 퇴보하는 사회 속에서 더 우기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적 사고 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예술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높다. 앞서도 말했듯이 미술의 애매성·조작주의를 수용할 수 없었던 미술대학 입시에서 공동 관리 제도는 이러한 배경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이 제도에서 공동 체점을 위하여 미술계 교수가 자기 대학이 아닌 타대학에서 체점을 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고 교수 스스로의 정직을 지키며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데는 이해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자존심이 담보로 되었다는 것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 4. 찬성해야 하는 이유

이상적인 미술대학 입시에서 채택될 수 있는 안이라면, 그것은 미술대학 교수들이 인정하면 입학이 허가되어야 하는 제도이며 이를 뒷받침으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미 그들 자신 속에 있는 능력의 잠재력이 드러나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자신 솔직한 고백으로 오즈음 얼마나 마음 편하고 떳떳하게 지내는지 모르겠다. 내 자신이 소속된 대학의 경우 체점을 하지 않으니까 제도적으로 정직하게 된다.

만일 대학 자체에서 입시가 관리된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나를 찾는 많은 미술대학 지망생들을 대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불가능할 것이다. 나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순수하게 자신을 관리한다 해도 아무도 그 정직과 순수를 믿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 아래 공동 관리를 찬성하는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동 관리가 되어야만 대학이 혼탁한 사회 속에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문교 당국, 미술대학 지망생 및 학부모 그외의 비미술인들이 보다 전문 분야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수준에 와 있

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되는 이야기들로부터 대학이 방어할 아무런 능력도 갖출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셋째로 미술대학 지망생들을 위한 입시 준비뿐만 아니라 미술을 즐기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제도권의 미술 교육 기관이 혼탁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동 관리 제도 아래서 어느 정도 객관성에 근거한 일 반화된 비제도권을 통한 미술 대학 준비가 가능하리라는 것이다. 만일 대학에서 자체로 실시한다면 비제도권 미술 교육 기관과의 갈등이 대두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째로 전국의 미술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행 출제 방식 및 채점 방식이 대학간에 불확실한 차이점들로 인하여 당혹하게 되는데 공동 관리는 어느 정도 대학간의 보편성이 형성될 가능성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동 관리로 인해 입시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이루어져 갈등 해소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5. 結 語

자존심을 담보로 공동 관리 제도를 찬성할 사람은 필자를 포함하여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관리를 찬성해야 하는 현실 상황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현실 상황은 미술인들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만

도 아니요 한국의 근대사적 관점에서 걸어 왔던 역사에 의하여 영향받은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사회 정의의 실현, 정치의 신뢰, 전통적 윤리의 회복, 옳고 그릇된 것이 확실히 인식되는 사회가 될 때 공동 관리 제도는 자연스럽게 폐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이 스스로 아카데미즘의 바탕 위에서 사회를 바라보려면 혼탁한 사회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眞理와 善을 지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것만이 사회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善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 관리 제도의 찬성은 대

학이 스스로의 문제를 관료주의 사회에 의존해 보려는 나약성에서가 아니라 대학이 혼탁한 사회, 불신의 사회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적극적 방법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 <投 稿 案 內>

「大學教育」 제38호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公募합니다.

1. 內 容—大學教育에 관련된 論說, 대학에서의 研究 및 教授 활동 중에서 대학 사회에 시사할 수 있는 主題에 관한 논의, 각 學科의 교육 과정이나 교수·학습 활동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와 외국에서의 연구 동향 소개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글

① 論 壇                      ② 教授談論                      ③ 學科別 教育課題

2. 枚 數—200자 원고지 35매, 45매 또는 54매 (②는 15매 또는 23매)
3. 期 限—1989년 1월 20일
4. 稿 料—매당 2,500원(채택된 원고에 한함)
5. 提出處—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韓國大學教育協議會 (전화 783-3891, 3067)
6. 附 記

- ① 國漢文을 혼용하되 漢字를 제한하고 필요할 때에는 原語를 併記해 주십시오.
- ② 論壇原稿에는 반드시 200字 이내의 要約文이나 拔萃文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③ 제출된 원고는 編輯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게재합니다.